

허수아비

글 이기철

그림 2학년 ____반 ____번 _____

새 떼를 쫓으려고 서 있는 줄 알지만
나는 새 떼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
사람들이 가고 나면
어깨 위에 새 떼를 불러 함께 놀지
콧노래를 부르면
들판도 흥에 겨워 넘실넘실